

<환경단편영화 시나리오 - 제목 미정>

**S#1 취조실 (스튜디오)**

태연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용의자

[인서트] 시계,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들

**S#2 복도 (비전 타워 복도)**

노트를 보면서 복도에서 걸어오는 형사

잠시 멈춰서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다가 다시 걸어간다.

**S#3 취조실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형사. 자리에 앉는다.

형사: 김민준씨 나이 23세, 대학생, 가족으로 부모님과 동생 1명. 교우관계 원만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용의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형사를 바라본다.

형사: (살짝 웃으며) 많이 긴장하셨나봐요?

용의자: (한숨을 한 번 쉬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사: 지난주 금요일. 뭐 하셨어요?

용의자: (가만히 있다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형사: 조사한 바로는 금요일 오후 2시, 집에서 배달음식 드시고 오후 3시 반쯤 카페에 들어서 커피를 산 후 친구들을 만나고, 오후 6시 10분쯤 편의점에서 가볍게 음주. 맞으시죠?

용의자: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그게 뭐 어쩔다는 거죠?

형사: 본인은 잘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정답이 다 나와있어요.

용의자는 당황한 듯 눈을 피한다.

형사: 당신은 몰랐겠죠. 아니 알고 싶지 않았겠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근데 그거 알아요? 당신이 죽인 거예요.

용의자: (긴장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형사: 그래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스스로 위로하면서 합리화하고 있겠죠.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용의자는 아래를 보다가 고개를 들어 형사를 바라본다.

형사: 다 실수였던 거예요? 그냥 한 순간의 실수? 진짜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용의자: (천천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형사: (어이없다는 듯이 살짝 비웃다가) 말도 안되는 소리 집어 쳐. 다 알고 있잖아. 외면하고 싶겠지. 난 잘못이 없다고. 이건 내 탓이 아니라 이 세상의 탓이라고. 언제까지 아닌 척, 모른 척 할 건데? 그냥 인정해 네 잘못이라고. 너 때문에 죽은 거라고.

용의자: (무표정으로 있다가 씩 웃으면서) 왜? 그러면 안돼? 이게 나 혼자만의 잘못이야? 내가 안 그랬다 해도 누군가는 나처럼 행동 했을 거란 생각 안해? 지금 이 순간에도. 나 같은 사람들. 또 있을 걸?

형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용의자를 바라본다.

용의자: 봐. 너도 아무 말 못하잖아. 그래 너 말대로 내가 잡혀 들어간다고 해보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 처음엔 그러겠지. 난 저러지 말아야지. 난 조심 해야지. 근데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 1년? 2년? (헛웃음을 치며) 하루도 안 갈 걸? 다 뒤돌아서면 그만이야. 그냥 하루 이슈일 뿐이라고.

형사는 흔들리는 눈으로 손을 떨며 용의자를 보고 있다.

용의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침착하며) 그래요.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요 형사님. 이 일로 뭐가 바뀔까요? 그렇게 바라시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이 올까요? (무섭게 웃으면서) 꼭 그랬으면 좋겠네요.

형사는 용의자를 계속 쳐다본다. 그 때 형사2가 들어와 용의자를 연행해간다.

#### **S#4 복도 (비전 타워)**

용의자는 형사2의 손에 끌려 연행되어 간다.

뉴스 Nar.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해양 쓰레기 더미, 일명 '쓰레기섬'이 탄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해양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다 질 식사를 하거나 장애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쓰레기 양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

지 않습니다. 2010년도에 약 3천억톤에 달한 쓰레기 양은 2016년 약 5천억톤까지 증가하였고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2050년엔 지금의 20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용의자가 연행되어 가면서 아까 형사가 본 포스터가 보인다.

(포스터 -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환경과 여러 생물종이 죽어가고 있다)